사·부·대·중

응담스님 49재날



주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연말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수덕사에 갔다. 1월 1일이 뜻밖에 응담(應潭) 노스님의 49재날이었다. 다비식을 마치고 한번도 재에 참석하지 못했고 스님이 떠나셨다는 생각조차 아직 가슴에 심어지지 않았는데, 어느덧 시간은 벌써 그렇게 지나고 있었다. 스님의 방문고리에는 여전히 스님의 손때가 그대로 남았고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발자취가 지금도 뚜렷한데, 무상(無常)을 업으로 사는 출가인이지만 시간은 아프도록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다시 실감했다.

인사를 드리려면 잘 받지도 않으시고 어쩌다 굳이 절을 받게되시면 "한번만 해, 한번만!"하고 큰소리로 말리시며 결코 삼배를 받지 않으시던 고집스러움. '노스님'이란 호칭으로 만족하며 군더더기 없는 일상을 지내셨다. 산중의 어른들이 대부분 그러하시듯 당신의 상좌와 시봉에게는 더 엄한 모습을 보이시곤 했었다. 그래서 그럴까 당신의 상좌들은 당신이 살아계신 듯 당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때로 고명한 '큰스님'의 유언도 그 제자들과 문중의 이해에 따라 종종 무시(?)되고 평소에 소박했던 큰스님들의 바램은 화려함과 거대함의 규모로 탈바꿈하곤 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49재등 어떤 제사도 지내지 말라.…너희들이 내 상좌라면 내가 이야기한대로 꼭 지켜주기 바란다. 거듭 당부하니 소홀히 하지 말라."

수덕사 산중스님들은 노스님을 모시고 산 '도리'로 조촐한 49재를 마련하였지만 교계신문에 실린 당신의 유언대로 당신의 시봉들은 근처에 사는 몇분을 제외하곤 49재에 참예하지 아니하였다. 능력과 여건이 남 같지 않은 스님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노스님의 시봉들은 명리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는 겸허한 모습으로 제자의 도리를 다했다.

출가사문이 출가인다운 삶을 살다가고 그 남은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따라 출가의 도리를 지켜가는 모습이 같은 먹물옷을 입은 사람에게도 신선하고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목탁소리

낯붉힌 포교원 - 군승단

김 두 식 (취재1부 기자)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이 지난해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양상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포교원이 발행하는 〈법회와 설법〉에 난 기사를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법회와 설법〉 1월호 칼럼란인 '회광반조'에는 "진급과, 이른바 목좋은 법당에 배치되기 위하여 인사청탁이나 검은 거래가 분분하다", "군불교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같은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군승단은 포교원이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1군지역 군승 정례 모임에서 일부 군승들의 강성 발언이 나왔고, 군승단 운영위원 전원이 군승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포교원장 정련스님과의 신년하례 자리에서는 〈법회와 설법〉 2월호에 사과문과 군승단의 입장을 담은 반론문 게재,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봉급을 털어 가며 군포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군승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을 두고 포교원이 군승단의 기강을 바로잡고, 서로 맞서고 있는 군불교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98년 공금횡령사건과 지난해 진급과 관련한 청탁으로 물의를 빚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볼 때 당연한 말을 한 것 가지고 군승단이 왜 저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는 포교원장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반론권을 준다는 약속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포교원과 군승단의 관계가 늘 그랬듯이 뒷전에서 북 치고 이를 맞받아치는 식의 줄다리기는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간의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드러내놓고 격론을 벌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단 기자만의 시각은 아닌 것 같다.

불교 NGO 국제 구호 활동

'世界一花' 영글어 간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방 선진국 및 국제개발기구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개발원조를 받았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무상원조는 45억불, 유상원조는 158억불에 달한다.

90년대이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 규모나 내용면에서는 빈약한 실정이다. 국제협력사업은 상호의존 및 호혜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교역 및 투자확대, 자원확보 등 경제 · 외교적 국익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정부 · 민간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한 불교 NGO들의 국제 구호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민간원조활동 가운데 불교계 국제구호활동은 어디쯤 와 있을까.

● 한국 국제협력의 현황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협력사업은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지원에 의해 개도국 연수초청훈련을 실시한 것이 효시다. 무상원조는 1977년 외교통상부가 9억원의 국산기재를 공여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1987년 3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창설, 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설립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의 실시체계가 갖추어졌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 등록된 33개 NGO중 22개 단체는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이중 불교단체는 이웃을돕는사람들, 한국JTS, 진각복지회 등 3곳이다.

2000년도 국제협력단의 국내 NGO지원사업의 규모는 6억3천만원으로, 총 22개 단체 22개 사업을 지원했다. 활동지역은 아시아가 17개 단체,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에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활동분야는 의료보건이 11개 단체, 교육훈련이 6개 단체, 농림수산 등이 3개 단체다.

민간차원의 원조는 정부차원의 공적원조사업을 보완할 수 있으며, 국민의식의 국제화 및 참여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국내 불교 NGO의 구호활동

우리나라 불교 NGO의 제3세계 구호 활동은 일회성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순히 식량이나 물품을 후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현지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법인을 설립, 교육과 의료 · 문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 · 이사장 법륜)는 인도와 미국, 중국에 JTS 현지법인을 설립, 다양한 교육 · 의료 ·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의료시설이 전무한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지역에 지바카 병원을 개원, 본격 의료지원을 개시하기도 한 한국JTS는 7년전 수자타아카데미와 12개 부설 유치원을 건립, 구호활동 및 교육 · 마을개발사업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갑작스런 한파로 가축 60%를 잃은 몽골 난민들에게 밀가루 36톤을 지원한데 이어 5월에는 가뭄으로 인해 식량이 바닥난 에디오피아에 실무자 2명을 파견해 구호 사업을 펼치는 한편 모잠비크와 케냐 등 아프리카 내륙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은 96년부터 NBSC(Nepal Buddha Sewa kendra: 네팔 불교복지서비스 모임)란 네팔현지 법인을 발족, 교육과 의료 · 급식 사업에 나서고 있다. 99년 5월 카투만두에 '아침을 여는 작은 마을'을 설립, 강의실 메디컬센터 도서관 식당 법당 등을 갖추고 자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진각종 진각복지회(이사장 성초)는 99년 11월 스리랑카와 네팔에 각각 JGO(The joy of genuine oneness: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란 명칭으로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국제구호사업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무상임차한 3천800평의 부지에 사회직업훈련센터를 개원, 이 지역 저소득층 자녀와 부녀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 자동차 · 전기 · 용접 · 제빵기술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어강좌, 한국불교문화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94년 발족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95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UN기구인 UNHCR(UN 국제난민대책기구)와 협약을 맺고 르완다 난민돕기에 나섰다. 99년에는 지진피해를 입은 터키에 1천만원의 구호금을 전달했다. 또 네팔 룸비니에 2개의 초등학교를, 포카라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무료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이화여대 이근후 교수가 이끄는 네팔의료봉사단은 10년 전부터 매년 초 네팔의 무의촌 벽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단장 홍광표)은 3년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 미얀마에서 의료봉사 및 컴퓨터 지원 및 교육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95년부터 98년까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활동해 온 우리는선우는 국제선우회와 승보공경선우회를 발족, 내전으로 고통받는 고아와 스님들을 지원해 왔으나 98년 IMF사태이후 자금난으로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JTS는 9일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개원 7주년 기념식에 이어 망코시힐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또 10일 지바카병원 개원식을 갖고 천민부락에 대한 본격 의료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카투만두 주민 공동체 운영 이웃을 돕는 사람들
인도 · 몽골 등 의료구호사업 한국 JTS
스리랑카 · 네팔에 JGO지부 진각복지회

● 해외 불교단체 활동사례

해외 불교 NGO들의 국제 구호활동은 경제력이 있는 일본과 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1966년 대만에서 창립된 불교자제기금회(Tzu-chi, The Buddhist Compassion Relief Foundation). 세계 전역에 15개 츄치 지회에 400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지구촌 난민을 위해 식량 및 물자 지원, 재정 및 장학금 지원, 의료 지원 등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88년 출범한 불교빈민구제사업단(BRM, Buddhist Relief Mission)이 아시아 지역 불교국가들의 빈민들을 위한 불교자선봉사운동 및 빈민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도 카투만두의 노약자를 위한 불교수용소, 캘커타의 판자촌학교, 미얀마의 상가병원, 방글라데시의 차크마고아원 등을 설립해 불교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태국 및 미얀마 스님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일본의 사찰 300여곳이 공동결성한 국제 NGO 지원기구인 아유스(Ayus)는 해마다 3억원 이상의 기금을 출연해 인권 · 환경 · 북한돕기 분야의 30여개 NGO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서는 티베트 후원단체들이 티베트의 난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미타 호스피스' '선 호스피스센터' 등 자원봉사단체들이 의료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이제는 국제자원활동 시대

이같은 '국제민간원조활동'은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국제협력인 '국제자원활동(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자원활동은 상호의존과 공존의 인류공동체 이념, 문화상대주의와 호혜성의 원리, 인도주의사상의 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류가 당면한 문제와 미래의 전망을 밝게 변화시키고 있다.

전 지구인의 동체대비를 이루고 지구촌을 불국토로 가꾸기 위해서라도 종단 및 불교단체들의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 민간교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